

“순결과 비극... 운동주 삶은 시대의 아이러니”

제3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 전통군 시인

제3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에 선정된 전통군(동의대 교수) 시인은 “운동주와 ‘서시’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격려가 고맙기도 했지만, 내 시가 얼마나 부합될 수 있을지, 생각하니 불편하기도 했다”며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동주가 자신의 강점기인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를 쓸까, 잠시 생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시인은 수상 소감과 시를 쓰게 된 계기, 습작기 시절, 향후 계획등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운동주 ‘서시’는 전 국민의 애송시다. 서시의 이름을 딴 운동주 서시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순결한 영혼’과 ‘비극적인 삶’이라는 극명하게 상반된 그의 모습은 우리 삶의 부조리와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운동주라는 이 애절한 이름에는 어떤 수사로도 미화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슬픔이 깃들여 있다.

-운동주 시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창작이나 일상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는지.

▲ 정자용의 말처럼, 생전에 시집 한 권

‘서시’의 이름으로 주는 격려 자격 있는지 한편으론 불편

시란 독백이거나 고백·질문 말 넘어서는 깊은 울림 줘야

내지 못한 채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 살다 간 운동주는 저에게 ‘시인의 원형적인 한 모습’으로 각인돼 있다. 그래서 강의 첫 시간에 늘 ‘시와 시대와 시인’이라는 테마로 영화 ‘동주’를 학생들과 함께 보고 있다.

-이번 수상작은 어떤 작품이고 특징은 무엇인가.

▲ 제 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시들을 쓸 때,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인간이라는 미스터리한 존재, 그리고 문학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들 삶과 이 세상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시를 쓰기 전 방송, 광고 관련 일을 했다고 들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달라.

▲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서 20년 간 근무했다. 주로 홍보, 출판, 공익광고 등의 일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했고, 2008년 부산 동의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현재 한국어문학과에서 시창작, 문학과 광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시 창작 입문 계기가 있을 것 같다. 문창 시절 시 공부는 어떻게 했나.

▲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 활동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를 공부하게 된 것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 다니면서 부터다. 동서양의 명작들을 접했고, 구상 선생, 동리 선생, 미당 선생의 강의를 들었다. 특히 구상 선생님께 “문학은 실존의 고투”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존재론적인 명제는 저의 화두이기도 하다.

-시란 무엇인가. 좋아하는 시인도 있을 것 같다.

▲ 저에게 시란 독백이거나 고백, 질문 같은 것이다. 저는 제 시가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럽다. 국내 시인으로는 백석과 서정주, 김중삼의 시를, 외국 시인으로는 로버트 프로스트, 내루다, 파울 쾰란, 쇠보르스카의 시를 아끼고 있다. 이들의 시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 속에 말을 넘어서는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다.

-시인을 지망하거나 시를 쓰고 싶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저는 그런 말을 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제자들이 시인으로 등단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 네가 쓰고 싶은 것을 써라. 그리고 힘들겠지만 무리 짓지 말고 혼자서 가라.

내년쯤 다섯 번째 시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정호 작 '파도'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파트 2

31일까지 예총회관... 화가·문인 등 200명 600점 전시

예향 광주를 다채롭게 빛내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차분히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9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파트 (Part)2가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회장 최규철)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부터 전시와 공연 부문으로 나눠 열리고 있다. 지난 12·13일 공연으로 파트1이 진행됐고 이번에는 지난 12·13일 같이 ‘가치’라는 주제로 회관 안팎에서 회화·문인화, 인쇄·설치, 사진, 문학 분야의 전시가 한데 모여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예총 회원 200여 명의 작품 약 600점을 선보인다. 전명옥, 이구용, 정명돈 등 광주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작가의 130여 점이 내걸리는 주요 전시는 백련갤러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기획전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지역예술가 육성사업의 하나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지호갤러리에서는 지난해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을 받은 작가 4인의 기념전이 마련돼 총 20여 점의 작



김철우 작 '201810-work'

품이 내걸린다. 광주예총은 또 지난해 광주에 이어 올해 대구문화회관에서 23일부터 열릴 동안 ‘4회 달빛동맹 교류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광주지역 작가 38명, 대구 35명이 민간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참여했다.

김기범, 장성훈, 최규철 등의 조각 작품을 이끄는 작가의 130여 점이 내걸리는 주요 전시는 백련갤러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기획전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지역예술가 육성사업의 하나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지호갤러리에서는 지난해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을 받은 작가 4인의 기념전이 마련돼 총 20여 점의 작

의 활용’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사진에 관심을 보여온 이 교수는 독일의 나치와 분단에 대한 문화적 기억 조형물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기술한 ‘사진으로 읽는 베를린’ (2017)을 펴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브레히트의 ‘전쟁 교반’, 노순택 작 ‘망각 기계’ 등을 통해 문화적 기억 매체로서의 사진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에 이야기한다. 문의 062-613-54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신지혜 해외작가특별상 이유식

운동주 서시 문학상 분상과 함께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과 ‘운동주 해외작가 특별상’ 부문도 수상자들이 가려졌다.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다. ‘토네이도’ 외 4편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신지혜 시인은 서울 출신으로 200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밀알’이 있으며 재외동포문학상, 미주동포문학상, 미주시인문학상 등을 수상했

다. 현재 ‘뉴욕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좋은 시고정칼럼을 연재 중이다.

신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나는 어떤 규칙에 얽매이거나 강요된 인습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 시절, 문학이 오직 나의 유일한 출구였다. 하여 꿈속에조차 시를 쓰곤 했다”며 “운동주 시인의 이름에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치열한 정신으로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고 이 세상을 관조하며 두렵두벽 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특별상은 한글 문학작품으로 캐나다 교포들에게 한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한을 풀어준 이유식 시인이 선정됐다. 한양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원을 수학 후 1974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 시인은 1997년 ‘열린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이민길’ 등 6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 시인은 “지난 11년간의 나의 약진과 투의 고난과 희성이 이상 하나를 보람을 안겨 준다”며 “운동주 시인의 생활 철학을



신지혜 이유식

내가 어이 논하랴만 운동주 시인의 서시가 너무 좋아 용정 명동 운동주 시인의 생각도 두 번을 찾았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희자 & 박순천 2인전 31일까지 LH휴광갤러리

고희자&박순천 2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도지주박물관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The Metaphor of Spa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사제지간인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스승 박순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등 다양한 판화로 패션 트렌드 등을 담아낸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융합의 조화’라는 작품에서 자유분방한 조형적 이미지를 활달하게 펼쳐놓았다. 박 작가는 서울, 인천, 뉴욕,

밀라노 등에서 14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SICAF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초대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송원대 교수로 재직중인 서양화가 고희자 작가는 들국화 등 꽃들을 소재 삼아 가을 향기 물씬 풍기는 수채화 작품들을 내놓았다. 수채화의 자연스러운 번짐을 만날 수 있는 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알개 바탕을 바른 후 그 위에 다양한 색감으로 덧칠을 해 자유스러운 문양을 만든 이번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고 작가는 6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분과 이사, 황도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토요일 휴관.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순천 작 '융합의 조화'

광주시립미술관 26일 사진미학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이 진행하는 사진미학 강좌 ‘사진과 인생’ 다섯번째 강의가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이재민 전남대 독일인어문학과 교수는 ‘사진에 관한 인문학적 사유-문화적 기억매체로서의 사진과 그 해석’을 주제로 강의한다.

전남대 독문과-서울대학교 대학원 독문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뒤셀도르프 대학교에서 독문학, 교육학을 공부했으며 베를린 공대 인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이 수업을 위한 사진자료

의 활용’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사진에 관심을 보여온 이 교수는 독일의 나치와 분단에 대한 문화적 기억 조형물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기술한 ‘사진으로 읽는 베를린’ (2017)을 펴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브레히트의 ‘전쟁 교반’, 노순택 작 ‘망각 기계’ 등을 통해 문화적 기억 매체로서의 사진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에 이야기한다. 문의 062-613-54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www.kipak.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 난연소재 · 맞춤형디자인 · 2중복합단열 ·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